특권폐지당 발기취지문

'가짜는 숨고 진짜는 나서라!'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우리는 포효한다!

무능한 진보는 부패를 더했고. 부패한 보수는 무능을 더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를 본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
'진보의 이름으로' 가짜 진보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보수의 이름으로' 가짜 보수들이 진실을 가리고, 세상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한다.
무능한 진보는 부패를 더했고. 부패한 보수는 무능을 더했다.
가짜 진보, 가짜 보수 패거리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기득권 가짜 진보·보수 정치패거리들의 발호, '이게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을 본다.
기득권 가짜 진보 정치패거리들은 문재인 전 정권 시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위선에 더해, 야당으로 전락한 뒤에도 이재명 1인에 복종하는 '방탄 정당'의 오욕을 희희덕대며 즐기는 파렴치까지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가짜 보수 정치패거리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고, 다시 여당의 기회를 부여받은 뒤에도 참회 없이 '웰빙 정당'의 오욕을 희희덕대며 즐기는 파렴치까지 이어가고 있다.
자칭 진보정권, 보수정권 구분 없이 '이게 나라인가?'라는 대중의 울부짖음이 천지를 진동한다.

'진짜들의 세상' 깃발, '정치혁명''국가개조'의 결단과 고행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짜들의 세상'을 혁파하고, '진짜들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고행의 깃발을 추켜든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 폐지를 겨냥해 올해 4월 16일 시작했던 국민운동 조직을 정당 조직이라는 정치결사체로 전환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가짜 보수, 가짜 진보 패거리들이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폐지를 거부한 채 결사 저항하는 현실에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정치혁명'이자 '국가개조'의 결단이다.
새로 조직되는 정치결사체는 입법부를 위시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한 권력 3부와 노동부터 문화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전방위적으로 발호해 있는 가짜 세력들의 기득권카르텔, 구체적으로 특권 및 이와 맞물린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특히 586주사파 운동권이 주축인 기득권 가짜 진보 패거리들의 정당 민주당이 문재인 전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데 이어, 윤석열 현 정권의 야당이되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재명 1인의 반민주적 전체주의, 패권주의에 함몰돼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득권 가짜 보수 패거리들의 정당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망각한 채, 이기적 보신주의에 함몰돼 나라의 운명에 대해 나 몰라 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구세력 혁파, '나라같은 나라'대전환의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민주당이 수구좌파이자 가짜 진보 패거리라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수구우파이자 가짜 보수 패거리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한다.
또한 이들 거대 양당이 기득권카르텔의 장벽을 치고, 끼리끼리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 일반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패악이 끝도 한도 없음을 직시한다.
진짜는 올바름이고, 가짜는 그릇됨이다.
진짜는 선이고, 가짜는 위선이다.
진짜는 상식이고, 가짜는 몰상식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는 '가짜들의 세상'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면서 '진짜 진보', '찐보'의 길에 일생을 바쳐온 '영원한 찐보 장기표'를 상머슴으로 부려 '진짜 진보 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짜 진보를 최우선 타깃으로, 가짜 보수까지 혁파해 '진짜들의 세상'을 열어젖히겠다는 결기를 국민들께 공개 보고 드린다.
'진짜 진보'로서 2024년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어지는 2027년 3.3 21

대 대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질주할 것이다.

동시에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같다'는 세상 이치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뜻 있는 일반 대중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가 함께 할 것임을 믿는다.
'나라 같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된 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을 '나라 같은 나라'로 대반전 시키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러나 누군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장기표가 간다! 우리가 간다! 국민이 간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가칭)특권폐지당 창당 발기인 일동